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업계와 소통을 통해 결정하였음

〈보도 주요 내용〉

5.30.(목) 한겨레 「반도체 중견기업에 17조 대출? 수요 파악 않고 규모만 앞세웠나」 보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이 국내 반도체 산업 내 대출 수요 대비 지나치게 크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전체 수요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7조원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의 조성 규모는 업계와 소통을 통한 수요에 기반해 결정한 것입니다. 소부장·팹리스 등을 포함한 관련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실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다년도에 걸쳐 조성·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출자방식 등 세부 방안은 6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044-203-4272)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310)
		담당자	사무관	신지호	(044-215-7313)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044-215-453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